

# 발굴 소설, 이호철의 「비틀비틀 族」 연구\*

황태묵(군산대)

## 〈목 차〉

- |                             |                 |
|-----------------------------|-----------------|
| 1. 서론                       | 4.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식 |
| 2. 1970년대의 현실과 「비틀비틀 족」의 위치 | 5. 결론           |
| 3. 텍스트의 구조                  |                 |

## 1. 서론

이호철은 한국 전후의 대표 문인으로 그와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작품 텍스트 자체에 대한 정리·분석 및 그 이해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기실, 한 작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구의 기본이라 할 전기적 자료의 논증이 선결되어야 한다. 한 작가에 관한 작가론, 작품론적 고찰은 이러한 논증의 타당성을 전제로 할 때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철 소설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서지와 판본 문제는 지금까지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그 동안 우리는 이호철의 많은 작품들이 개별 작품집이나 전집에 수록될 때에 수정되거나 개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 - 2012S1A5B5A07037466].

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텍스트를 선정하는 오류를 범해 왔다. 그런가 하면 잘못된 전기 및 서지를 바로 잡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가론을 수행하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그 동안에 필자는 1차 자료인 텍스트를 검토해본 결과 상당수의 자료가 개작이 이루어졌고, 상당의 자료들이 기존 작품 연보에서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작품 연보가 근본적인 서지적 오류를 안고 있어서 재검토·재정리가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정확한 작품목록의 재구도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작가론이나 작품론을 기대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우선 소실된 작품의 발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작품연보가 나와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비틀비틀 족』은 지금까지 이호철 연보에서 누락되었던 작품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호철의 『비틀비틀 족』은 1970년 4월부터 12월까지 잡지 『국세』에 9회 연재 발표된 소설로, 중산층 소시민의 속물적 욕구와 일탈을 다루고 있다. 그 동안 이 소설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데는 우선, 『국세』라는 조세 잡지에 실린 것도 한 원인이 될 것이다. 세정 당국과 크게 인연이 없던 이호철이었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에서 지워진 작품일 수도 있다.

한편 작가가 ‘태작’이라 생각하여 버린 작품일 수도 있다. 작가의 입장과 배치하거나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일 경우에는 아예 목록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가 원하던 원하지 않은 연구자는 빠진 작품들을 찾아내어 온전한 텍스트로 위치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비틀비틀 족』은 중산층 가정의 일상 세태와 풍속을 통해 산업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1970년대 이호철 소설의 한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소설은 1970년대 사회의 한 단면과 이 시기 소설의 존재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이 기회를 통해 발굴 소설 『비틀비틀 족』의 당대적 성격과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기존의 이호철 문학에 대한 연구를 심화·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1970년대의 현실과 「비틀비틀 족」의 위치

유신 체제로 상징되는 1970년대는 주지하다시피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유신 체제는 정치적 자유와 민주화보다는 경제적 근대화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고, 이러한 성장이데올로기 정책은 1970년대 압축적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1960년대부터 이어진 산업화와 도시화<sup>1)</sup>의 과정은 1970년대에 와서 왜곡된 형태로나마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61년까지만 해도 82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에 210달러로 두 배 이상이 증가하고, 1977년에는 1,011달러로 천 달러에 진입하게 되었다.<sup>2)</sup> GNP의 급속한 신장에서 알 수 있듯이, 1970년대의 대중들은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나 약간의 물질적 풍요와 여가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고 제도교육의 확대<sup>3)</sup>에 힘입어 대중문화의 주요 소비층으로 자리잡아 갔지만<sup>4)</sup> 정치·사회적인 면에서는 강한 제재를 받아야 했다.

고도 경제 발전을 위한 통치 권력의 강화는 1970년대 내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불러왔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계층 간의 반목과 빈부격차의 심화, 물질만능주의와 부정부패 등 사회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

1) 한국의 도시화 비율은 1960년에 33.8%에 불과했으나 1970년에는 49.8%로 급격한 신장세를 보여준다. 또한 1965년에서 1973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은 6.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던 브라질의 4.5%, 멕시코의 4.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도시화에 따른 인구 집중으로 서울의 인구는 1960년대 9.8%였으나 1970년에는 17.6%, 1980년에는 22.3%로 상승한다. 이에 대해서는 박진도, 「현대사 다시 쓴다 : 농촌인구의 이동과 도시화」, 『한국일보』, 1999년 8월 3일, 14면.

2) 통계청, 『통계로 본 대한민국 50년의 경제 사회상 변화』, 1999.

3) 1970년대는 고등교육의 인구가 급상승한 시기이기도 하다. 1960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고등 교육 인구의 비율이 40%이었으나 1975년에는 86%로 두 배 이상이 증가한다. 대학생 수 역시 1965년에 10만 명이었으나 1975년에는 20만 명이 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문교부, 「문교부 통계연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통계연감』, 1985.

4) 1960년대까지만 해도 여가를 누리거나 소비 취향을 가진 사람은 특수한 계층에 불과했으나 1970년대에는 젊은 농민, 노동자, 직장여성, 대학생들이 도시로 대거 유입됨에 따라 대중문화의 향유층이 확대되는 특징을 보인다. 전후에 태어난 이들 베이비붐 세대는 1970년대의 산업화,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서구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다양한 문화 상품의 소비주체로 성장했는데, 이들 청년 문화는 '정바지와 통키타, 포크송, 생맥주, 장발' 등으로 상징되었다. 1970년대 청년문화에 대해서는 주창윤, 「1970년대 청년문화의 세대담론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14권 3호, 2006, 참조.

다. 유신 정권은 이러한 모순적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 강한 억압과 통제 정책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는 언론을 비롯한 대중들의 일상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제화로 이어졌다.<sup>5)</sup> 그러나 당국의 검열 강화는 도리어 한국 사회에서 엄숙주의에 대비되는 성과 육체를 일상적 관심사로 부각시키는 대중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당대의 퇴폐적인 사회 풍조와도 연관되어 있었다. 당국은 겉으로 퇴폐풍조 일소 등을 표방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매춘산업을 합법화하는 등 외화획득 수단으로 향락문화를 조장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성과 육체의 상품화는 성 개방 풍조와 맞물리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확대되는 부작용을 드러냈다.<sup>6)</sup>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상업적인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성과 육체에 대한 담론이 대중들에 의해 폭발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한다. 특히 1960년대 말부터 다수의 대중적 주간지들이 창간되고 텔레비전이 전국적으로 보급<sup>7)</sup>되면서 통속적이고 감각적인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 수용되기에 이른다. 당시 대표적 대중주간지라 할 수 있는 『선데이서울』은 여배우의 비키니 화보나 외설적인 기사, ‘유희 시리즈’ 등 당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던 성담론이나 성애 표현을 주로 다루면서 대중의 통속적인 열망을 재현해냈고, 많은 독자층의 열광적인 호응을 이끌었다.<sup>8)</sup>

1970년대 대중문화 확산의 와중에서 대중문화로서 대중소설도 새로운 양

5) 1971년 9월 30일에 유신정권은 퇴폐 문화 추방의 명목으로 내무·법무·보건사회·문화공보부를 동원하여 “사회윤리와 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퇴폐풍조 단속에 나선다”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1973년에는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개정 경범죄 처벌법’을 발표시켰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1972년 10월 말까지 8만 3,000여명이 머리를 깎이고 1만 2,000여명이 즉심에 회부되었다.

6) 1970년대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도시로 이주한 지역의 여성들이 저임금의 노동자를 거쳐 물질적 이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수단인 매춘을 선택하게 되면서 매매춘이 산업화되고 도시 주변부로 확산되던 시기로, 이때부터 술집에서 일하는 직업여성을 일컫는 호스티스라는 새로운 유행어가 등장하게 된다.

7) 1968년에는 『주간중앙』, 『주간조선』, 『선데이서울』, 1969년에는 『주간여성』, 『주간경향』이 각각 창간되었다. 한편 1969년에 전국의 텔레비전 수는 25만대에 불과했지만 1975년에는 전국적으로 100만대를 돌파하게 된다. 강현두·원형진·전규찬, 『한국 대중문화의 형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26-28면.

8) 김성환, 『<1970 박정희부터 선데이서울까지>(4) 선데이서울과 유신시대의 대중』, 『경향신문』, 2013년 8월 23일자. 여기서는 인터넷 기사 참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232115095&code=210100&s\\_code=af136](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232115095&code=210100&s_code=af136)

상을 띠게 된다. 무엇보다도 신문연재소설을 중심으로 여성의 성적 타락과 육체적 사랑이 대중소설의 중요 소재로 자리잡게 됐다. 그리고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1972년)을 필두로 하여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1974), 조해일의 『겨울여자』(1975) 등의 신문연재소설이 잇따라 대중적·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1970년대 대중소설은 막강한 문화적 파급력을 보여주게 된다.<sup>9)</sup> 대중소설의 이러한 성공에는 그 내부에 독서 대중의 세속적 욕망뿐 아니라 강압적이고 암울한 시대상에 대한 저항적·일탈적 욕망 등이 내재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1970년대에는 산업자본주의의 병리인 성과 육체의 상품화, 매춘 등 성 개방 풍조가 문화적 활기와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는 여성의 성과 육체를 대상으로 한 대중소설의 창작과 향유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호철의 『비틀비틀 족』 역시 이러한 문화적 요인을 반영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이 1970년대 전반기의 대중소설을 대표한다면 1970년에 발표된 이호철의 『비틀비틀 족』은 그것의 엄청난 성공을 예비케 한 그 계열의 선두가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별들의 고향』과 같은 ‘호스티스 소설’이 남성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여성을 다루고 있다면,<sup>10)</sup> 『비틀비틀 족』은 여성의 자유, 향유와 더불어 여성의 욕망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또한 『비틀비틀 족』은 직업여성이 아닌 가정주부의 일탈적 욕망과 성적 타락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비석의 『자유부인』(1953)이나 김승옥의 『강변부인』(1977)과 같은 ‘부인(夫人)류’ 대중소설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부인』과 『강변부인』이 각각 전후와 1970년대 후반의 상황을

9) 가령 1972년 연재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던 『별들의 고향』은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100만부 가량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를 영화화한 <별들의 고향>(이장호 감독, 1974년)은 105일 만에 4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기록을 세운다. 또한 목사의 딸이자 여대생인 주인공의 애정 모럴에 일대 혁신을 보여주며 당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조해일의 『겨울여자』 역시 베스트셀러를 거쳐 영화로 각색되어 1977년에 한국 영화 최단 관객 동원(60만 5천 명)을 기록하게 된다.

10) 이러한 관점의 연구로는 김현주,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03; 박승숙,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의 여성 인물과 ‘연애’ 양상 연구』, 『여성학논집』23집 2호,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06; 김지혜, 『1970년대 대중소설의 죄의식 연구』, 『현대소설연구』52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등이 있다.

배경으로 여성의 허영과 퇴폐풍조를 문제시 하고 있다면, 『비틀비틀 족』은 1970년대 전후의 가치 혼란과 윤리 상실을 초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이함을 보인다. 『비틀비틀 족』에서 목격되는 중산층 가정의 속물적 욕구와 허위성, 성적 일탈과 방종, 전통적 윤리 규범의 붕괴, 물신숭배주의 등은 당대 현실에 만연된 가치부재의 혼돈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이다. 이런 점에서 이호철의 『비틀비틀 족』은 1970년의 현실과 그런 현실에 바탕을 둔 대중소설의 존재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 3. 텍스트의 구조

『비틀비틀 족』은 1970년 잡지 『국세』에 1970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9회(38호-46호)에 걸쳐 연재 발표되었다. 원고지 분량으로는 대략 526매가 조금 넘는 분량의 중편이며, 소설의 결말부분에 에필로그가 제시되고 있다. 『비틀비틀 족』의 시간적 구조는 정은하가 의상실을 개업하기 이전의 첫 해와 다음 해인 2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공간적 배경은 서울로 설정되어 있다. 이 작품은 크게 두 가지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유부녀인 정은하와 약혼녀가 있는 김영식이 벌이는 애욕의 서사이고, 다른 하나는 ‘뱃심과 똑심 그리고 <쇼오브>’를 무기로 사업에 승승장구하던 서창욱이 폭력적이고 비도덕적인 생활 속에서 점차 몰락해가는 파국의 서사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서사를 바탕으로, 텍스트 내에 비밀요정, 사채, 사교춤, 미8군의 동향, 정인숙 사건 등 당대를 풍미했던 사회·문화적 현상들이 자연스레 제시되고 있다. 사건의 진행은 대체로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 순차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사건적 요소들로 텍스트의 흐름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사업가인 남편 서창욱과 결혼해 다섯 아이를 둔 전업주부로 살아가던 정은하는 일 년 전, 남편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상실 <리라>를 개업하다.
- (2) 은하는 의상실 디자이너 부부의 소개로 화가들의 부모모임에 참석하고, 그곳에서 젊은 화가 김영식과 파트너가 되어 춤을 추다.
- (3) 네 번째 모임이 끝나고 영식과 호텔까지 동행하지만 잠자리만은 끝내 피하다.

- (4) 창욱은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아내가 자신처럼 외박한 사실을 알게 되다.
- (5) 창욱과 은하는 의상실에서 말다툼을 하다.
- (6) 은하는 창욱에게 따귀를 맞고, 외박은 했지만 자신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한다.
- (7) 그날 저녁 은하와 영식은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다.
- (8) 영식은 약혼녀인 미호에게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은하를 계속 만나다.
- (9) 미호는 은하의 의상실에 찾아가 영식을 돌려달라고 부탁하나 거절당하다.
- (10) 창욱은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가족소풍을 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하다.
- (11) 모친의 일탈이 염려되어 찾아온 희옥에게 미호는 영식의 집주소를 알려주다.
- (12) 희옥은 영식에게 모친과 헤어질 것을 부탁하다.
- (13) 영식은 조금 전까지 은하가 방에 있었다는 것을 밝히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말한다.
- (14) 영식이 모친의 젖값을 치러야한다며 육보이려하자 희옥은 악을 쓰며 저항하다.
- (15) 은하는 창욱에게 영식과의 일을 말하다.
- (16)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딸의 모습에 격분한 창욱은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고 영식의 집으로 향하다.
- (17) 법에 호소하는 것은 피차에 좋을 것이 없다는 영식의 말에 아내를 영식에게 떠넘기겠다고 말한다.
- (18) 영식은 창욱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이 개운해질 수 있다면 그 제안을 따를 수도 있다고 말한다.
- (19) 창욱이 외박을 한 사이 은하는 화해를 바라지 않으며 매주 토요일 저녁 아홉 시에 전화하겠다는 편지를 남기고 떠나다.
- (20) 창욱은 가출한 부인의 전화를 받아야하는지 생각에 잠기다.
- (21) 어떤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시계만 들여다보다.
- (22) 토요일 아홉시에 전화가 걸려오다.
- (23) 창욱은 수화기를 통해 전해지는 아내와 영식의 신음 소리를 들으며 피가 거꾸로 흐르는 기분을 느끼면서도 아내의 문란한 사생활을 엿듣고 싶은 욕망에 수화기를 귀에 바짝 대다.
- (24) 토요일마다 연거푸 걸려오는 아내의 비슷한 전화에 차츰 초췌해져 가고, 사업도 부도가 나다.
- (25) 은하가 희옥 앞으로 생활비를 보내오다.

(26) 보름 후, 창욱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다.

이상의 경계에서 알 수 있듯, 『비틀비틀 족』은 대중소설 특유의 애정 서사를 기본 축으로 하여 남녀간의 애정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인물과 인물간의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갈등 구조는 ‘서창욱-정은하-김영식’의 삼각관계와 이 구도와 연계되는 ‘정은하-김영식-미호’의 삼각관계를 기본 구조로 취하고 있다. 텍스트 내에서 이들 인물은 각각 초점화자이면서 동시에 초점화 대상으로 설정된다. 텍스트 전반부(1-11)는 가정에 머물러 있던 정은하가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면서 서창욱과 갈등에 빠지고, 의도적으로 김영식을 유혹하는 비윤리적인 방법을 택하면서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 제시되고 있으며, 후반부(12-26)에는 정은하와 김영식의 붕괴된 성도덕으로 인한 정은하 가정의 해체와 이에 따른 서창욱의 파탄이 서술되고 있다.

텍스트 내에서 정은하는 철저하게 욕망을 주도해가는 인물로 묘사된다. 그 욕망의 움직임에 따라 중심인물이 서서히 이탈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비틀비틀 족』의 서사에 핵심을 이룬다. 이는 정은하의 갈등이 가정(집 안)과 의상실(집 밖)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설정과 그녀의 일탈이 의상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결국 그것이 가출로 종결된다는 설정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는 이 소설이 인과응보식의 당위적 결말을 제시하는 멜로드라마의 구조를 채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마비된 서창욱의 파멸에서 보여지듯 이 소설에는 인물들의 비윤리적인 행태와 배금사회의 실태를 고발하는 서사가 공존하고 있다. 1970년대 산업자본주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결과론적 목적지향의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생산해 내었고, 이러한 사고는 당대 일반 대중의 삶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았다.

그가 일상적으로 가장 애용하는 말은 <쇼오브 친다>는 말이다. 인생살이 모든 일이 사리와 도리로 해결된다기보다는, 어떤 무엇에겐 승부를 걸어서 돌격식으로 정복을 해서 해결한다는 생각이다. 그가 이 소리를 이토록 애용한다는 것은, 곧 오늘의 그를 이루기까지, 이 철칙이 가장 잘 먹어들었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11)

텍스트 내에서 서창욱은 이러한 산업자본주의 논리에 지배받고 있는 인물로 서술되며 자연스럽게 도덕적 윤리의식과 대척점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서사의 질적인 밀도가 강조되는 후반부에 와서 그의 속물성과 허위의식은 정점을 향해 치닫는다. 하지만 서술자는 서창욱을 부도덕하고 타락한 인물로 묘사하면서도 그를 악인형 인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이는 이 소설이 전통적인 의미의 선악 대비 구도를 취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결국 결말에 이르러 은하와 영식은 함께 비도덕적인 일탈을 감행하고 창욱은 광인이 되어 정신병원에 갇히는 것으로 작품은 마무리된다. 이러한 결말은 억압적인 가부장의 질서 속에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는 여성인물의 탈주욕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권이 흔들리는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도덕적 선에 의해 악이 응징되는 멜로드라마의 일반적인 결말과는 대비를 이루는 결말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텍스트 내부의 갈등 해결을 지연하는 이러한 결말 구조는 텍스트 외부의 갈등 역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서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운을 남기는 결말을 공론의 장에 배치함으로써 언어적으로 표면화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생각해보게 하는 효과가 그것이다.

이러한 결말은 소설 이면의 현실성을 드러내고, 사회적 문제를 리얼하게 드러내기 위한 작가 나름의 결론이며, 소설에서 제기된 문제가 현실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음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자에게도 서사를 재해석하게 함으로써 당대 현실의 모순과 한계를 함께 탐색하게 하는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작품의 결말구조는 이처럼 등장인물의 일탈행위를 당대 사회의 본질적 모순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도록 해줌으로써 그것이 역사적·사회적 차원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는 폭력적이고 퇴폐적인 당대의 부정한 사회상과,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여성의 일탈과 욕망에 전가하려는 가부장적 시선에 대한 비판이 일정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비틀비틀 족』의 결말은 통속성 자체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작가의 진지한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1) 이호철, 『비틀비틀 족』, 『국세』38호, 1970. 4, 168면. 이하 작품 인용은 본문에 횡수와 면수를 표기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 4.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식

### 4.1. 일탈의 욕망과 흔들리는 부권

『비틀비틀 족』은 1970년대 중산층 소시민의 물질주의와 성적 타락을 통해 당대의 가치 부재를 풍자한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서창욱은 시세에 편승하여 세속적 이익을 좇아온 인물로,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편입하기 위해 바둥거리는 속물이다. 한때 그는 미8군 상대의 납품일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지만 요사이 미군 감축설의 영향으로 사업이 신통치 않자 변화를 시도한다. 첫 번째는 꿈에 한미합작 서비스 시설을 차려두고 돈 벌이 겸 장사 겸 양공주를 그곳으로 보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본 모상사의 한국대리점을 맡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자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문제로, 후자는 접대의 공을 들였던 일본인 파트너가 탈세 혐의로 추방을 당하게 되어 없던 일이 되어버리면서 도덕적 윤리적인 파탄상태를 드러내게 된다.

한편 서창욱의 아내 정은하는 20여 년 동안 다섯 자식을 돌보고 사업가인 남편을 내조해온 평범한 전업주부이다. 그러한 그녀가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정을 뛰쳐나와 의상실을 차리게 된 근원에는 “자기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과 “여자로서는 개방적이며 호기심이 많은 성격”(1, 175면)이 자리하고 있다. 그녀는 집 밖의 세계에서 사업가로서 명성을 쌓아가는 한편 가정에서도 남편보다 경제적 우위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과 경제적 자립을 이루게 되면서부터 남편에 대해 “문화라는 세계와는 동떨어진 무식한 남자”(1, 175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런 인식은 은하가 자신의 욕망을 표출할 대상을 다른 이성에서 찾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화가부부 모임의 참석은 이런 심리를 한층 부추기게 된다. 소설에서 묘사한 화가들은 이성 교제에 매우 적극적이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는 모임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공적인 일상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그러나 “모일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2회, 165면) 매번 술을 마시며 잡담을 나누다 화제가 궁해지면 서로 파트너를 바꾸어가며 춤을 추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 이들의 소비적이며 쾌락적인 취미생활은 퇴폐한 당시 사회의 풍속도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날 밤 양주를 조금씩 마시고 남국의 화분들이 준비해 있는 홀 속에서 전축을 틀어 놓고 조용조용히 춤을 추었다. 이상스러운 일이었지만, 부부 동반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아내를 바꾸어가며 춤을 추면서도, 정 은하 여사에게만 은 손을 내밀지 않았다. 이미 정 은하 여사는 김 영식의 독점물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암암리에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2회, 166면)

춤을 추도록 꾸며 놓았는데 벗짚으로 가려서 오불꼬불한 골목길처럼 만들어 있었고 곳곳에 부연 램프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음악도 멀리서 들리듯이 장치해 있었다. 결국 춤을 추는 당사자들은 두 사람끼리 이외에는 서로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벗짚으로 가려진 골목길을 오불꼬불 돌이서만 맞잡고 걷는 셈이었다. (2회, 169면)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춤은 이들 모임의 취미 생활이며, 이 모임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통과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묘사된 이들의 춤은 문화인의 건전한 사교의 춤이라기보다는 성적인 욕망과 방종을 끌어내는 도덕적 일탈로서의 춤이라 할 만하다. 따라서 이들의 춤추기는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서의 취미 생활이기보다는 육체적 즐거움을 부추기는 쾌락적 장치로 작동한다. 즉 육체의 욕망을 표현하고 남편이 아닌 다른 여성과 접촉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방탕한 취미와 정신적 타락은 물질적 풍요가 가져온 가치 붕괴 현상을 잘 보여준다.

은하는 이 모임에서 알게 된 젊은 화가 김영식과 어울려 춤을 추고, 그 춤을 매개로 자신의 “희고 아른아른하게 미끈거리는 살결”(2회, 170면)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한다. 그리고 “문화적이고 교양 냄새”(2회, 167면)를 풍기는 영식을 남편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인식한다.<sup>12)</sup> 이러한 인식은 은하가 ‘문화’와 ‘교양’이라는 허상에 매혹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 특히 일탈의 근원에 그녀의 허영심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문화’와 ‘교양’이라는 말

12) 이 과정에서 창육과 영식에 대한 은하의 대비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구도로 정리될 수 있다.

서참육	김영식
집 안 / 질서 / 부부 / 책임	집 밖 / 욕망 / 애인 / 쾌락
무식 / 촌티 / 일상 / 영혼	교양 / 귀티 / 일탈 / 육체
야만적 / 늙음	문화적 / 젊음

로 자신의 불온한 욕망에 대한 죄의식을 해소하는 과정이며, 자신의 일탈적 행위를 도덕적으로 합리화하는 이기적 심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은하의 속물적 허위의식은 당대의 들뜬 시대적 분위기나 환경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런 당대의 정신적·도덕적 혼란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후 은하는 영식과의 관계에서 육체적인 욕망에 눈뜨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도덕적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 영식과 처음 불륜 관계를 맺을 때만해도 “인생살이의 여기(餘技)” 정도로 생각했으나 차츰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정염의 불길”(5회, 170면)을 느끼기에 이르고, 중국에는 주도적으로 성적 욕망을 꾀하고 실천한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성적 관계를 통해 잠재되어 있는 내부의 성적 욕망을 깨닫게 된다.

정 은하 여사가 방 안으로 들이닥치듯이 들어선다. 그러자 눈빛은 탁해지고 이상한 광채를 발한다. 몸 전체를 궁싹거리며 강렬한 욕망을 드러낸다. 그것은 그저 그런 냄새일 뿐이다. 김 영식은 선병질적인 연약한 웃음을 동물적인 표정으로 입가에 흘리며 벌써 순정의 표정을 드러낸다. 그것은 행복의 표시이다. 제 몸과 제 마음을 이미 제 자신이 움켜 잡고 있지 못하는 사람의 그 비굴이 떨림으로 작용되고 있다. 머리를 땅에 쑤셔박고 온 몸을 휘떨고 있는 평의 꼴인 것이다. 이리하여 이쪽은 자연스럽게 매가 될 수 있다. 정 은하 여사는 침착하게, 꿈틀거리며 숨 쉬고 있는 김 영식의 몸을 하나 하나 헤친다.(7회, 175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은하는 영식과의 불륜 관계를 통해 성적 쾌락을 즐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은하가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성적 욕망을 그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자유롭게 향유하는 주체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은하는 자신의 성생활에서 동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영식은 철저하게 은하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 도구화되고 있다. 『자유부인』에서 선영이 자유연애의 이념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인물에 머물렀다면, 「비틀비틀 족」의 은하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연애의 주체로 현현된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에는 ‘남성 지배-여성 순응’이라는, 남녀 사이에 개재하는 젠더의 역학 관계가 ‘여성 지배-남성 순응’이라는 전도된 관계로 드러난다.

한편 영식은 은하와의 성관계에서 욕망과 죄의식이라는 이중적 감정을 느

끼는 데, 이러한 모순과 균열은 그 스스로가 자기혐오를 느끼는 원인이 된다. 영식은 약혼녀인 미호와 결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부녀인 은하의 육체를 욕망하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낀다. 그는 은하와의 불륜 관계를 맺은 후에 “죽고 싶을 만큼 자기혐오”를 드러내고, 그녀에 대한 “증오와 복수의 감정”(7회, 176면)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세속적인 욕망에 순응하는 자기 자신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하와 영식의 은밀한 만남은 희옥이 영식에게 겁탈당할 뻔한 일이 발생하면서 중단되고 만다. 이 사건 이후 창욱은 은하의 부정을 폭력으로 처벌하고 아내와 딸을 농락한 영식의 집으로 향한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정부인 영식에게 비도덕적이며 비상식적인 대응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도덕적 윤리적인 파탄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sup>13)</sup> 은하는 그러한 창욱에게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온다.

내 이 집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추호나마 쫓겨나는 형식으로는 나가기 싫고, 또 이 집에 머무른다 하더라도 죄인이 용서 받는 형식으로는 싫어요. 대체 어째서 나만 죄인이지요? (...중략...) 일단 나는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이제 부터가 싸움이라면 싸울 수도 있고, 그냥 담담하자면 담담할 수도 있겠어요. (...중략...) 화해? 대체 화해가 뭐지요. 그런 싱거워빠진 말이 이런 데 해당이나 될 소리인가요. 난 싫어요. 난 화해 않겠어요. 이건 당신이나 나나 철저히 넘겨야 할 고비일 꺼예요.(9회, 174면)

『자유부인』을 비롯한 많은 대중소설의 결말은 집을 나간 여성이 쾌락의 대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행복을 되찾는 것으로 종결된다.<sup>14)</sup> 그러나 『비틀비틀 족』의 결말은 집을 나간 은하의 일탈이 그러지며, 그 과정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파탄상태를 드러낸 창욱이 자괴감과 함께

13) “서 사장 말씀은 결국 그 분을 저에게 떠맡기고 싶은 것입니까. 솔직하게 그렇다는 것입니까.” / “천만에 이 판에 솔직하고 담담할 수는 없는거 아뇨. 난 당신이 불행하지는 길이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벌이고 싶은 거요.” / “그러니까.....”  
 “마누라를 당신한테 떠넘기겠다는 거요.” 김 영식의 입가에 스프르 웃음이 번지었다.(9회, 170면)

14) 김영애, 『《자유부인》에 나타난 인물 형상화에 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2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217면.

광인이 되어 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창옥의 파탄은 부권의 권위를 상실한 1970년대 가부장제의 폭력성과 비도덕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은하의 탈주는 도덕적으로 흔들리는 부권에 대한 내부적 저항감의 표출이자 진정한 자유에 대한 욕망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술자는 그러한 은하의 내부적 욕망을 남성의 그것과 비교하여 악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그녀의 일탈에 대해서도 대체로 객관적인 서술을 보여준다.<sup>15)</sup> 이런 결과로 소설 속에서 그녀는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위치지어지만 한편으로는 가부장 사회에서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주체적인 여성으로 재현된다. 이러한 중립적인 서술과 인물형상화는 결과적으로 이 소설이 열린 결말을 취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2. 1970년 전후의 세대 재현과 비판

이호철은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것처럼<sup>16)</sup> 현실 세계의 생생한 풍속을 소설로 형상화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한 작가다. 이호철 스스로도 “현장감, 생동감이야말로 소설에서 가장 으뜸으로 중요한 것”<sup>17)</sup>이며 ‘소설가는 탁월한 풍속사가’<sup>18)</sup>이기도 해야 한다는 신념을 표방해 왔다. 삶의 현장에 바탕을 둔 일상과 풍속에 대한 탐구는 이호철의 소설세계 전반을 관류하는 원칙이기도 한데, 이는 1960년대부터 발표된 작품들에서 쉽게 확인된다. 식민지 역사 현실을 준거로 삼아 1965년 한일 협정 당시의 현실을 비판한 『1기 졸업생』 연작이나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창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여성인물의 행적을 사회적 관점에서 재현한 『서울은 만원이다』, ‘고무신 짝’을 소재로 중산

15) “그러나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따진다면, 문제는 정 은하 여자 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서 창옥은 제 멋대로 제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마누라인 정 은하여사인들 정 은하 여사대로 제 입장이 있는 법인 것이다.”(3회, 165면)

16) 이보영, 『소시민적 일상과 증언의 문학』, 『현대문학』, 1980.8, 268면; 류경동, 『세대의 재현과 불온한 유령들의 소환』, 『겨레어문학』41집, 겨레어문학회, 2008, 461면.

17) 이호철, 『이호철의 소설창작 강의』, 정우사, 1997, 45면.

18) 한수영, 『탈향: 그 신산한 역사적 삶의 도정 -이 계절의 작가 이호철』, 『실천문학』45호, 실천문학사, 1997, 403면.

층의 이중적인 행태를 풍자한 「큰 산」 등의 작품은 모두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비틀비틀 족」 역시 이러한 창작방법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는 작품이다.

「비틀비틀 족」은 중산층의 일상 세태와 풍속을 통해 1970년대 자본주의화에 따른 물질주의와 속물성과 가치 부재의 상황을 조명하고자 한다. 강북의 한남동과 일류 호텔 등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한강을 경계로 강북과 강남이 위계화되는 현상을 포착한다. 창욱의 가족이 사는 한남동은 한강이 남쪽으로 내려다보이는 장소에 위치한 공간으로, 1970년대 초 국가주도의 도시계획에 따라 자본가를 중심으로 서울의 계층적 위계가 이루어진 공간이다. 이러한 한남동은 1970년대 서울의 발전을 상징하는 주요 기표로, 도시 중산층의 물질주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소설에는 본격적인 자본주의화, 산업화,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생활의 변화와 그 변화가 동반하는 여러 세태와 풍속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이는 당대 대중들의 취향과 일탈적 욕망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가령, 댄스를 비롯하여 의상실 <리라>, 전축, 별장, 포르노 잡지, 한남동, 적선동, 장충동, 정릉, 신문로, 핵가족, 엠버서더호텔, 대연각호텔, 위커힐호텔, 타워호텔, 올림퍼스호텔, 진피즈·스르류 드라이버라(요금), 블란서 유학, 홍신소, 여가수, 여배우, 주간지, 가정법원, 전화, 텔레비전, 식모, 미8군, 요정, 자동차, 화필, 2층 양옥집, 최은희, 김지미, 엄앵란, 태현실, 남정임, 문희, 전계현, 이미지, 국도극장, <미워도 다시 한번>, 「울고 웃는 남의 인생」, 등등은 모두 1970년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의 단면을 읽어낼 수 있는 기표로 작용한다.<sup>20)</sup>

19) 이 작품이 잡지 연재소설이라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넓게는 대중, 좁게는 매체의 독자를 만족시켜야 하는 잡지 연재소설은 문예지나 단행본과는 달리 불특정한 독자의 흥미와 욕구에 어느 정도 부합해야 한다. 또한 매주 혹은 매호 연재된다는 특성은 독자의 반응 및 욕구가 소설의 창작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장편소설보다는 대중성을 띠 수 있다.

20) 이 가운데서 포르노 잡지·한남동·식모는 창욱과 은하의 관계를 이어주는 기표이며, 댄스·전축·별장·엠버서더호텔·위커힐호텔은 은하와 영식의 관계를 이어주는 기표라 할 수 있다. 또 적선동·의상실 <리라>·여가수·여배우·주간지는 은하의 직업과 직장에, 미8군·요정·타워호텔·대연각호텔은 창욱의 직업과 사생활에, 신문로·화필·자동차·블란서 유학은 영식의 직업과 생활에 관련된 기표들이다. 이외에 가정법원·전화·홍신소는 은하와 창욱과의 관계에 긴장을 조성하고 갈등을 촉발하는 기표로 제시된다.

이러한 현실의 재현은 일차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도모하고 그들의 호기심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당대 독자들로 하여금 현실을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춰 해석하게 함으로써 현실 이해에 대한 폭을 넓히고, 그 공동의 코드를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작품과 독자간의 소통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의 재현은 서사 진행 속에서 화자의 언술로 때로는 등장인물의 대화로 서술된다. 그 내용과 범위는 당대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현상 등 매우 다양하다. 물론 재현된 현실에 대한 해석의 지향점은 인간 삶의 구체적 인 문제들로 풍자와 비판이다.

「비틀비틀 족」에 재현된 당대의 세태풍속과 관련하여 먼저 주목되는 것은 당대인들이 보여주는 속물성과 물질만능의 가치관이다. 1970년대 텔레비전의 보급과 각종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이른바 대중스타가 하나의 이야깃거리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레 소설을 통해 형상화된다. 「비틀비틀 족」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찾아볼 수 있다. 창욱을 예로 하여 위에서 언급된 현실 재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창욱은 시세에 편승하여 세속적 이익을 좇아 속물적 삶을 추구해온 인물로, 그의 돈에 대한 욕망과 속물적 이기심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의 수준을 넘어서 있다.

“벌써 날자가 그렇게 되었다. 역시 장산 뭉니 뭉니 돈 장사가 최고라니. 생산적이 못 되고, 욕을 먹어서 그렇지, 그 장사가 최고는 최고야.” 이렇게 혼잣소리 비웃이 중얼거렸다.

개성상회란 정식 상호가 아닌 익명이고, 간판도 무엇도 없는 이자놀이 업자인 것이다. 본시 개성 사람이어서 그런 명칭이 붙었는데, 관철동 근처에서 외양은 구질구질해 보이는 건재 한약국을 차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새 밭의 피요, 진짜 장사는 돈놀이 장사여서, 서 창욱도 꼭 진우를 통해서 극비밀리에 얼마가량의 돈을 맡겨두고 재미를 보고 있는 셈이었다.(3회, 166면)

그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영화배우들이다. 그것도 외국의 영화배우가 아니라 국내 영화배우들이며 특히 여배우들이다. 여배우들 가운데서도 그때 그때의 톱 인기배우들이다. 한때는 최 은혜를 좋아하였고, 그 다음 한때는 김 지미·엄 앵란을 좋아하였고, 또 한때는 태 현실을 좋아하다가 요즘은 윤

정희·남정임·문희를 좋아한다. 그리고 극히 최근에 와서는 전계현을 좋아한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국도극장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는 평평 눈물을 쏟았던 것이다. 그 눈물은 본인의 말을 빌리면 구질구질한 눈물이 아니라 나포레옹이나 오나시스같은 자도 더러 흘렸을 영웅 호걸의 눈물이라는 것이었다.

지난 달엔가 모 여성잡지에 실린 전계현의 고백수기 『울고 웃는 남의 인생』도 한 자 빠뜨리지 않고 다 읽었다.(1회, 165면)

위 예문들은 창육의 속물화된 가치관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실에서 그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적나라한 속물적 욕망과 돈에 대한 탐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호철 소설에는 이러한 물질만능의 가치관을 신념화하는 부정적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소시민』의 김씨와 천안 색시, 『서울은 만원이다』의 남동표와 서린동집 영감, 『공복사회』의 민과장 등이 그러하거나 창육 역시 그런 부류에 속하는 대표적 인물이라 할 것이다. 위의 예문이 보여준 바와 같이 “돈 장사가 최고”라는 창육의 처세술과 삶의 방식은 ‘건재 한약국’으로 위장하여 사채놀이를 하는 ‘개성상회’의 이중성과 함께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양산하는 한국 사회의 배금주의를 그대로 노출시킨다. 그와 동시에 창육이 돈으로 학벌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해온 과정은 한국 사회에 물질만능주의와 속악한 자본주의가 고착되는 과정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인다.<sup>21)</sup>

그의 이러한 행태는 물화된 사고와 정신적 가치의 퇴화로 귀착된다. 그것은 두 번째 예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때그때의 인기에 따라 존경하는 인물이 ‘최은희→김지미→엄앵란→태현실→남정임→문희→전계현’으로 바뀌어가는 상황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처럼 당대 사회의 문화적 현상에 대한 재현은 인물에 대한 희화화와 더불어 비합리적인 가치와 기준이 우선시되는, 외형만 중시하는 부박한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내포하고 있다. 정신적

---

21) “돈을 들어 모 삼류대학 경영과의 3학년으로 편입, 시험 때만 짤차로 학교로 나가 그렇게 졸업장을 얻고는 계속 대학원에 적을 두고, 차일피일 10년 이상이나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책 한권 제대로 안 읽은 주제에 본인은 <쇼오브>치듯이 대학 공부를 마쳤다고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자처할 만도 한 것이 요즘은 그 대학 부속기관처럼 되어 있는 동창 설립인협회의 이사로 재임중에 있다.”(1회, 169면)

성장을 유보하는 이러한 왜곡된 욕망의 표출은 1970년대 산업화 사회 속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물질주의적 타락과 깊은 조응관계를 형성한다.

그런 점에서 당대 여배우에 대한 창욱의 포퓰리즘적 인식은 단순히 창욱 개인적인 인식으로 치부될 수 없다. 창욱의 속물성과 물질만능의 가치관은 당대 현실 사회와 같은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것은 중산층의 이기적 개인주의 혹은 도덕 불감증을 필두로 한국 사회 일반에 팽배해 있는 물질만능주의와 속물성을 꼬집는 것이며, 군사정권에 의해 주도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우려이기도 하다. 이처럼 작가는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에피소드를 적극적으로 소설에 끌어들여 독자가 공유하는 현실의 틀을 매개로 대중들의 의식 속에 각인되어 온 물질만능의 가치관과 그 속물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성풍속 세태이다. 한국의 성산업은 산업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물질적 풍요를 토대로 1970년대부터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문화풍속 하에서 성 개방 풍조는 직업여성이 아닌 일반여성의 성적 타락을 야기했다. 한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1970년대는 “불륜이 비어홀처럼 만연해지며 신중 오락처럼”<sup>22)</sup> 유행하던 시대로, 여성의 성적 문란은 당대적 삶의 문제였던 듯하다. 작가는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설에 끌어들이므로써 당대의 성풍속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오늘은 어딜 나갈 참이야.”

서 창욱 사장은 약간 정색을 하면서 다시 물었다.

“그런 소리 함부로 묻는 게 아니에요.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것 몰라요. 동시에 인권 침해. 간단히 얘기해서 죽은 정 인숙이 나가던 곳, 알 만해요?”

“비밀요정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 이외야 알 수가 있나. 참, 정 인숙과 관계하고 있던 남잔 누구누구지? 그러구 그 애는 누구 애지? 저 놈 저 소리 하고 이 놈 이 소리 해서 종잡을 수가 없더구나.”

“이양반이, 누구 쿡가루 되는 걸 보고 싶나.”하고, 성자도 비로소 조금 진지해지면서 말했다. (3회, 169면)

---

22) 김승옥, 『작가의 말-나와 소설쓰기』, 『무진기행』, 문학동네, 2004, 14면.

정 은하 여사도 낮을 수그리고 조금 붉히듯 하면서 뒤따라 일어섰다. 보이는 중종걸음을 치더니 열쇠 하나를 갖다 주었다.

“마침 비었어요. 이 방이 제일 시원할 겁니다. 조망도 좋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든 방이지요. 만일 내일 아침까지 쓰시자면 좀 곤란해질지 모르지만, 그 점 제가 알아서 처리하지요.”

“무슨 소리지? 곤란해진다는 소린….” 김 영식이 예사로운 가락으로 물으며 열쇠를 받아 쥐었다.

“그 방을 단골로 정하고 쓰는 분이 몇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오시면 좀 곤란해진다는 얘기죠.”

“알았어, 알았어.”(4회, 166면)

1970년 3월 17일에 발생한 ‘정인숙 피살사건’은 이른바 3공화국 최대 섹스 스캔들로 발전하며 당대 최대의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다. 수사 과정에서 정인숙이 비밀요정(선화각)의 접대부로 일했다는 것과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수첩에 당시 정관계 고위층 주요인사 수십여 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지도층의 부도덕성은 여론과 시민의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덧붙여 당시 정인숙의 3살짜리 아들이 과연 누구의 아이냐를 놓고 여러 설이 나돌면서 당대 최고 권력층의 섹스 스캔들로 비화되었던 것이다.<sup>23)</sup> 위의 예문 속에 드러나는 정인숙 사건에 대한 묘사는 추악하고 불안정한 정치현실을 꼬집는 일면이자 1970년 한국 사회의 윤리부재와 성도덕의 타락을 적나라하게 반영한 세태로 볼 수 있다.

한편 두 번째 예문은 여주인공 은하가 영식을 만나 호텔 객실에 들어가는 장면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보이가 영식과 나누는 대화의 이면에 당시 대중들의 외설적이고 퇴폐적인 성풍속과 성문화가 잘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의 재현은 퇴폐한 당시의 사회를 은유하는 장치이자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일부 특권층의 치부가 당대 민중들의 삶과 얼마나 유리되어 왔는지 입증하는 구체적 사례라 할 것이다. 이처럼 작가는 당시 최대의 화제가 되었던 정인숙 사건과 같은 성추문을 언급함으로써 독자들의 이목을 끌었고, 그런 관계로 「비틀비틀 족」에는 성풍속과 그 이면 생활이 한층 구체적인 형태로

23) 한국어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A0%95%EC%9D%B8%EC%88%99\\_\(1945%EB%85%84\)](http://ko.wikipedia.org/wiki/%EC%A0%95%EC%9D%B8%EC%88%99_(1945%EB%85%84)) 참조.

포착된다. 그런 점에서 『비틀비틀 족』은 변화하는 현실 그 자체를 재현의 대상으로 삼아 당대인들의 삶의 습속과 세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풍속사와도 같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 5. 결론

본고는 이호철의 작가의식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가 연보에서 누락된 작품의 발굴과 이를 통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필자가 발굴한 『비틀비틀 족』은 1970년 4월부터 12월까지 잡지 『국세』에 9회 연재 발표된 소설로, 중산층 도시민의 속물적 욕구와 일탈이 다루어졌다. 1970년대에는 정치적 억압과 대비된 성 개방 풍조가 문화적 활기와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는 여성의 성과 육체를 대상으로 한 대중소설의 창작과 향유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이호철의 『비틀비틀 족』은 이러한 문화적 요인을 반영하고 있었다.

『비틀비틀 족』 텍스트는 크게 두 가지 서사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하나는 유부녀인 정은하와 김영식이 벌이는 불륜의 서사였고, 다른 하나는 정은하의 남편 서창욱이 폭력적이고 비도덕적인 생활 속에서 몰락해가는 파국의 서사를 엮을 수 있었다. 서술과정에 투입된 작가의식을 통해 일탈의 욕망과 흔들리는 부권, 1970년 전후의 세태 재현과 비판적 인식을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이 소설이 가부장적 윤리와 도덕적 계몽의 서사로 귀결되는 정통 대중소설과는 다른 변형된 결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세태 재현에 입각한 당대 현실 풍자와 비판이 독특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 점에서 『비틀비틀 족』은 연재 대중소설의 계보를 견지하면서도 그 서사의 도식성을 일상과 풍속의 구체적인 형상화를 통해서 극복하고 한 단계 벗어나는 성과를 획득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소설을 통속적 대중소설의 범주에 넣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느슨하고 산만한 서술, 단조롭고 평면적인 서사, 서술자의 주석적 해설을 통해 인물의 성격화가 이루어진다는 점 등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 〈참고문헌〉

### 1. 자료

이호철, 「비틀비틀 족」, 『국세』 38-46호, 1970. 4-12.

### 2. 논문 및 저서

강현두·원형진·전규찬, 『한국 대중문화의 형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곽승숙,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의 여성 인물과 ‘연애’ 양상 연구」, 『여성학논집』23집 2호,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06.

김승욱, 「작가의 말-나와 소설쓰기」, 『무진기행』, 문학동네, 2004.

김영애, 「《자유부인》에 나타난 인물 형상화에 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 2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김지혜, 「1970년대 대중소설의 죄의식 연구」, 『현대소설연구』52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김현주,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03.

류경동, 「세대의 재현과 불온한 유령들의 소환」, 『겨레어문학』41집, 겨레어문학회, 2008.

이보영, 「소시민적 일상과 증언의 문학」, 『현대문학』, 1980.8.

이호철, 『이호철의 소설창작 강의』, 정우사, 1997.

주창윤, 「1970년대 청년문화의 세대담론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 2006, 가을호.

한수영, 「탈향, 그 신산한 역사적 삶의 도정 -이 계절의 작가 이호철」, 『실천문학』45호, 실천문학사, 1997.

황태목, 「이호철 소설에 나타난 분단인식 변모과정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11.

### 3. 기사

김성환, 「<1970 박정희부터 선데이서울까지>(4) 선데이서울과 유신시대의

대중』, 『경향신문』, 2013년 8월 23일자.  
박진도, 『현대사 다시 쓴다 : 농촌인구의 이농과 도시화』, 『한국일보』, 1999년  
8월 3일자.

#### 4. 인터넷 자료

한국어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A0%95%EC%9D%B8%EC%88%99\\_](http://ko.wikipedia.org/wiki/%EC%A0%95%EC%9D%B8%EC%88%99_(1945%EB%85%84))  
(1945%EB%85%84)

## 【국문초록】

이호철의 『비틀비틀 족』은 1970년 4월부터 12월까지 잡지 『국세』에 9회 연재 발표된 소설로, 중산층 소시민의 속물적 욕구와 일탈을 다루고 있다. 1970년대에는 정치적 억압과 대비된 성 개방 풍조가 문화적 활기와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는 여성의 성과 육체를 대상으로 한 대중소설의 창작과 향유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이호철의 『비틀비틀 족』 역시 이러한 문화적 요인을 반영하고 있다.

『비틀비틀 족』 텍스트는 크게 두 가지 서사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하나는 유부녀인 정은하와 김영식이 벌이는 애욕의 서사이고, 다른 하나는 정은하의 남편 서창욱이 폭력적이고 비도덕적인 생활 속에서 몰락해가는 파국의 서사이다. 서술과정에 투입된 작가의식을 통해 일탈의 욕망과 흔들리는 부권, 1970년 전후의 세대 재현과 비판적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이 소설이 가부장적 윤리와 도덕적 계몽의 서사로 귀결되는 정통 대중소설과는 다른 변형된 결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세대 재현에 입각한 당대 현실 풍자와 비판이 독특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이호철, 발굴소설, 『비틀비틀 족』, 작가의식, 여성의 일탈, 흔들리는 부권, 세대재현, 현실비판

【Abstracts】

## A study on 『BiteulBiteujok』, A Recently Found Novel of Lee Ho-cheol

Hwang, Tae-Muk

This paper is the author of Lee Ho-cheol consciousness in order to correctly identify the missing works of first through excavation and rebuilding it from the first was to be the goal. 『BiteulBiteujok』 of Lee Ho-cheol in April 1970, the ninth novel series published in the magazine 『national』 until December, deals with the Snobby desires and deviate little people of the middle class. In the 1970s, began to appear with an open climate of political repression and cultural vitality compared castle, which was creative and have implications for the enjoyment of the subject and the body of the popular novels by women, 『BiteulBiteujok』. This is also a Lee Ho-cheol reflecting the cultural factors.

『BiteulBiteujok』 exhibit two types of text is largely narrative structure. One is the narrative of a married woman is Jeong Eun-ha and grab the Kim Young-sik passion, and one husband is violent and immoral ukyi Jeong Eun-ha recitative of an epic catastrophe in the fall to go in life. Teumip consciousness of the writer desires and deviate from the Patriarchate to describe the process shaky, you can read the social conditions of reproduction and critical awareness before and after 1970. Through this review, we have the novel ethical and moral orthodoxy

patriarchal narrative of enlightened public that result in novel and has a different ending deformed structure and social conditions of contemporary reality satire and criticism ensure that the unique areas and based on reproduction can be found.

Key words : Lee Ho-cheol, A Recently Found Novel, 『BiteulBiteujok』, Consciousness of the write, Deviation of women, Patriarchal ideology, Representation of Social Condition, Criticism to Social Reality

이 논문은 2015년 1월 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2월 2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2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